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근본에 맡기면 악도 선도 둘 아니죠

15면에서 계속

그 자리에 무조건 놓고 가는 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놓는 것 따로 있고 관하는 것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자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체 경계를 놓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끊어진 중도의 마음, 텅 빈 마음이 되고 난 연후야 이룰지를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의 꽃을 피워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래 자리를 마음껏 쓰려면...

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마치 허공과 같이 딱딱하게 공한 그 자리, 바로 모습 없는 나의 참나가 세상 모든 것을 들고 노는 것을 사무치게 느껴보고, 물어도 보지않아 여전히 우매한 중생인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습과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정말 죽어서, 항상 들이 아닌 내 본래 자리를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답 공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우쳐야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착이기 때문에 빨리 깨우쳐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놓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뚝뚝뚝 걸어야 합니다. 빨리 깨우치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그런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믿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기밖에 못 다녔는데 나중에는 저기 먼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어져서요. 차츰차츰 뛰어오르는 거지 한계면에 뛰려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부터 체험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 하나 체험을 해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도 만민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을 보면 오관을 통해서 지금 오신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위법만 활용을 하지 무위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외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남을 위해서 방편으로 했다면 잠시 거짓으로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 생각해서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타인의 욕심이나 내 욕심이나 똑같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야만 한다는 그 관념에 머물러서 얼빠짐이나 더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체험을 해가면서 딱딱 밀고 나가보세요. 의심을 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믿고 나가다 보면 점점 감응이 와서 느끼게 됩니다. 점점 점점 점점 큰 큰이 되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구요. 나라에 위기에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이 생깁니다.

참회의 참뜻 알고 싶어요

문 스님께 감로법문을 구합니다. 참회란 '용서를 빌다' '뉘우친다'는

등의 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행법으로는 이참법, 사참법등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삼매경에 '어떻게 하는 것을 참회라 하나니까?' 아난이 여쭙었을 때 부처님은 '진실 관에 들 때 모든 죄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상임을 관하면 죄과란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죄가 없어지고 번뇌망상의 마음이 없어지면 이참 곧 참회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참회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고, 혹 어떤 도반은 예불시간에는 참회하라고 하는데 참회와 예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 법회에서 여러번 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어떤 농부가 논일을 보러 나가다가 보니까 논두렁 옆 숲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지 새끼 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본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들고 있던 삽으로 그 구렁이를 몽땅 몽땅 끊어버렸습니다.

- 되돌려 놓으면
- 어느것 하나
- 참회아닌것 없어요
- 일을 해도 참회
- 예불해도 참회
- 남 배려도 참회

구렁이야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구렁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 농부는 손주를 다섯 낳았는데 모두가 다 불구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손주를 낳아도 그랬고, 작은 아들이 손주를 낳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하겠지만 사실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기구한 인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대(代)째 내려오는 깊고 깊은 업연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



그림 · 최주현

그 도리를 믿고 그렇게 한다면 모든 업들은 다 녹게 되는 것이죠. 설사 지난 생 어느 때에 죄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한번 돌려 놓는다면 그대로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려 놓는 수행이야말로 참회종의 진참회(眞懺悔)요, 공덕중의 공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주인공 한마음에 놓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참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참회하는 것이요, 법당에서 예불을 모셔도 참회하는 것이요, 남을 위해 한 생각 내주는 것도 참회하는 것이니 즉 일체를 그 자리에서 함을 믿고 놓아가다 보면 참회할 것조차 없음을, 놓을 자리조차 없음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 한 맛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불교라는 큰 바다에 들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마음이면 족합니다.

바다에 들어오는 물들은 다만 물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듯, 불교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런 마음이면 족한데, 세상에는 마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 이미 바다, 즉 불법이라는 한 통에서 해일치고 있으나, 다만 사람들이 모르고 못 느낄 뿐이죠. 마음을 가졌다면 모두 결국 불법이라는 큰 바다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이치를 잘 알아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하세요. 나는 이

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돌이켜 보면 악하게 되는 것도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생활하는 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혼란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 윤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인지 가르침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깨달았다 해도 그 이전에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올 때 무슨 일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물렸을 때 내 모습, 잘못했을 때 내 모습, 알기 이전의 내 모습으로만 본다면 믿고 종교가 없습니다.

저렇게 물렸었지. 모두 내 모습 같구나 하고 생각하면 정말 애담고 애처워서 마음을 내게 되지 '저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지혜가 풍부해야 지비도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지, 지혜가 풍부하지 못하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해주면서 위해야지, 말이나 행동으로 간섭한다면 마음이 넓어질래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산천초목들을 보세요. 요즈음처럼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것이 거름이 되어 봄이 되면 다시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리기도 합니다만, 시대가 시대만큼 그 것도 망가뜨린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돌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는 계발할 수도 없고 마음 떠나서는 인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상태를 보고 일어나는 양면의 마음을 다스려서 놓을 줄 알아야만이 진정한 규범, 윤리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터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키다 안 지키다 하지만, 근본에 일임하고 중심을 세운다면 악도 선도 둘이 아니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현상계 이끄는 법칙 있습니까

문 현상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상계를 이끌어 가는 법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위에는 거꾸로 진정으로 못난 사람이 있으니 이 무슨 원리입니까? 잘난 사람은 못나고도 못난 사람의 뜻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다 놓고 선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나와 틀이 아니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못났다 못나지 않았다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같고,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지극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넓고 평온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진실로써 걸어갈 뿐입니다.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빙긋이 웃고, 산을 바라보면 싱그러운 마음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그 안에서 진리의 맑음을 들읍니다. 그러니 그는 가장 못났으면서 가장 잘난 사람인 것이죠.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애초하고 작게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허허 웃을 수 있는 대장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모두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이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얼른 그 마음, 경계에 깰달리는 마음을 주인공에게 맡겨버리세요. "당신 믿어 주십시오" 하고 즉시 맡기세요. 그러면 순간 깰달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용광로에서 한 쇠를 집어넣는다 해도 다 녹여서 깨끗하게 새로운 도구가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그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금강같이 믿어야 하고, 그 자리에 일체의 번뇌와 경계를 놓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진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현상계의 법칙도, 그 법칙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현상계를 이끌어가는 법칙도 마음법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현상도, 현상계도, 지금의 나도 우리 모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현상계도 그 법칙도 마음과 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관계도 '내기준' 앞세우면 불편

"나도 예전에 저랬지" 생각해야 이해 커져

우리는 무심중에 저지른 일 때문에 내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저 모르고 받습니다만,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전에 내가 지은 생각이나 행동과 연결되지 않고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즈음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모든 업보가 한 군데에 입력되어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술술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이기에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놓아야 앞서의 입력된 것이 지워지므로 물럭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과의 법칙을 다 알고 나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때가 늦습니다. 내 앞에 닥쳐오는 대로 모든 경계를 순간 순간 되돌려 놓아서 새로이 입력되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문 존재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 왔습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위안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욕심과 꿈을 접고 불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답 참으로 불법에는 단계도 없고 일도 정하게 정해진 문도 없습니다. 어린 이든 어른이든, 세상 학문에 유식하든 무식하든, 불교를 알고 믿은 지 오래든 초심자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풍물이든 잔물이든 흙탕물이든 빗물이든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차별이 없

미 부처라는 것, 나는 이미 깨달음의 존재라는 것이 지금은 생소하겠지만, 나도 결국은 마음이라는 바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수많은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영원한 자유인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생각이 나온 그 근본자리에 말입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근본자리에 귀의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경계들을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신심이 점점 피어오르도록 열심히 관하시기 바랍니다.

선악 가릴 수 없다는 생각 들어

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윤리나 법, 도덕 같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규범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서 비난을 당하곤 합니다. 이런 규범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우리는 늘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규범들이 과연 선하거나 악한 건지 규정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배우고 가는,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부모를 눈이나 생각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 쪽에서 서서 자녀에게 한마음이 돼 주었다면 폐단이 올 게 없고, 자식들은 부모한테로 들어가서 그 기준에서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도 폐단이 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너는 이렇게 안하면 밥 벌이 못한다"고 말하고, 부모에게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우주 천하를 통일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각기 모습이 다르고 제각기 차원도 다르지만 본래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와서 물질에 이끌리고, 먹고 사는 데 이끌리고, 애착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름이나 형식에 이끌리지 마세요. 이름이나 형식에 이끌리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허, 나도 예전에

어서이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암은 또다른 병동입니다. '길을 찾는 아들'과 '대행 스님'이 나는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화답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부터 14호(97.9.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계란 태생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배우고 5000원이라는 과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절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재능공헌을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어서이문의 의지를 살린한 것입니다.

어서이문은 '좋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파된다'는 정신으로 세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듭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